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오 종 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선 후기 사회변동 교육연구

2012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이 경 숙

조선 후기 사회변동 교육연구

오 종 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이 경 숙

인 준 서

이경숙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개요

조선 후기는 전근대사회로부터 근대사회로의 이행이 진행되던 시기이다.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자체적으로 자본주의가 발전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농업이 발전하면서 농민층이 분해되었고 상공업의 발달로 도시화가 진전되었으며 신분질서가 동요되면서 중간층이 성장하고 사회변혁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왕과 지배계층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백성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시기가 조선 후기이다.

본 연구는 ‘학생들에게 효용성이 있는 역사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현재를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현재의 사회 문제와 현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역사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선 후기에 이루어진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큰 변동양상을 주목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조선 후기 사회변동의 과정을 연구사 정리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조선 후기에는 농업생산력의 증대로 ‘광작’과 ‘경영형 부농’이 나타났다. 그러나 경작지를 얻지 못한 농민들은 임노동자가 되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였다. 또, 인구의 증가로 조선 후기의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농업으로만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기존에 행정기능을 가진 도시는 경제적 기능도 가진 도시로 기능이 확장되었고 원래 도시가 아닌 지역도 상공업의 발달로 도시로 성장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신분제 동요현상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는데, 필자는 균역이 양역화되면서 하층민들도 균역을 피하기 위하여 신분을 상승시키려 노력한 것에 주목하였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요호부민층은 18세기 이후 사회경

제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신분을 상승시켰는데 이들은 기존 재지사족인 '구향'과 대비되어 '신향'으로 지칭된다. 조선 후기 향권 쟁탈전에서 볼 수 있는 표현으로 '구향'과 '신향'의 향전도 향촌 양반층의 계층분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실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신향'은 행정적인 실무를 장악하게 됨으로써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가운데 신분지위를 보장받으려 하였다. 중간층은 수령권을 중심으로 향촌사회가 재편되면서 실무능력을 이용하여 향권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19세기 중엽에 들어서면 향촌사회에서 수령주도의 향회와는 다른 대민과 소민이 모두 참여하는 민회가 결성되었다.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서술된 조선 후기 사회변동 내용을 분석한 결과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연구사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도시화의 진전이나 요호부민, 민회 등에 대한 설명이 『한국사』 교과서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아서 조선 후기 사회변동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교과서에서 부족한 조선 후기 사회변동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선 후기 사회변동에 대한 수업방안으로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적·분석적인 사고를 통해 상황을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강의식 수업과 토론식 수업 이렇게 총 2차시로 된 수업방안을 제시하였다. 1차시 수업에는 강의식 수업으로 토론의 주제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기 위한 수업방안을 제시하였고, 2차시에서는 1차시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세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였다. 토론식 수업에서 토론의 주제는 조선 후기에 나타난 현상 중에서 전근대사회를 근대사회로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면서 그 현상이 현재 사회문제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하

여 선정하였다. 이러한 수업 방안을 통해 학생들이 현재의 사회 문제와 현상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

목 차

논문개요

I. 머리말	1
II. 조선 후기 주요 사회 변동의 과정과 의미	4
1. 농업 발전과 농민층 분해	4
1) 농업생산력의 증대	4
2) 광작의 확산	7
3) 농민층의 분해	8
2. 상공업의 발달과 도시화의 진전	9
1) 인구의 증가	10
2) 상공업의 발달	11
3) 도시화의 진전	14
3. 신분질서의 동요와 중간층의 성장	16
1) 균역의 양역화와 신분질서의 동요	16
2) 중간층의 성장과 향촌질서의 변화	18
3) 사회변혁운동의 대두	19
III.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에 서술된 조선 후기 사회변동 내용 분석	22

IV. 조선 후기 사회변동에 대한 수업 방안 28

V. 맺음말 34

참 고 문 헌

ABSTRACT

I. 머리말

조선 후기의 사회변동은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보통 임진왜란 이후부터를 조선 후기로 구분하고 있지만, 사회변동의 징후는 임진왜란 이전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15세기 말엽 성종 연간에 이르러 중세적인 병농일치를 추구하던 균역제에서 代立과 雇立 현상이 나타났고, 부역제도 또한 15세기 말에 편찬된 『經國大典』과 『大典續錄』의 법 규정과는 달리 포납화 하고 있었다.¹⁾ 이러한 것을 근거로 보면 조선 후기 사회변동은 이미 15세기 말부터 시작되어 1876년 일본에 의해 강제로 개항되어 세계자본주의 질서에 편입됨으로써 근대 사회가 시작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²⁾

조선 후기 이전까지 사회변동에서 지배층이 긍정적으로 기여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피지배층의 능동적인 움직임에 의해 변동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조선 후기 사회변동이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이행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도 중요하다.³⁾

조선 후기에 진행된 주요 사회변동 양상으로는 농민층의 분해 현상, 중간층의 성장, 도시화의 진전, 민중의 성장 등을 들 수 있다. 농민층의 분해 현상과 관련된 연구는 북한에서는 허중호에 의해 196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고⁴⁾ 남한에서는 1970년부터 김용섭이 많은 연구 성과는 낸 바 있다.⁵⁾ 허중호는 ‘광작’

1) 崔完基, 「임노동의 발생」, 『한국사』 33 - 조선 후기의 경제, 국사편찬위원회, 1997, 121쪽.

2) 순조 즉위(1800년) 후 세도정치가 시작된 것을 생각하면 18세기 말까지를 조선 후기로 정할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외세의 영향이 조선에 미치게 되는 개항 전까지를 조선 후기로 정하겠다. 이는 많은 책들이 강화도 조약부터를 근대로 서술하고 있는 것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

3) 崔允晤, 「광작과 지주제」, 『한국사』 33 - 조선 후기의 경제, 국사편찬위원회, 1997, 113~119쪽.

4) 허중호, 「우리나라에서의 화폐지대의 발생에 대하여」, 『력사과학』, 1964.

5) 金容燮, 『朝鮮後期農業史研究』 I·II, 一潮閣, 1970.

에 주목하였고, 김용섭은 ‘경영형 부농’의 등장을 강조하였는데, ‘광작’과 ‘경영형 부농’의 맞은 편에서 나타나고 있던 역사적 현상이 바로 농민층의 분해였다.

중간층의 성장은 1990년대에 이르러 근대사회를 향한 사회변동을 이루어 낼 주체세력으로 중인층을 주목하면서 연구되기 시작하여⁶⁾ 서열, 신항 등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어 왔다. 중간층에 대한 관심은 처음에 일제식민지 시기와 해방 직후의 사회지도층 인사 가운데 중인층의 후손이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촉발되었다. 김옥균 등 갑신정변을 일으킨 급진개화파의 사상에 오경석, 유대치 등 중인신분의 인물들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도 연구가 진행이 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최근에는 여러 학자가 함께 조선 후기부터 일제식민지 시기까지의 사회변동에서 중간층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구명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진 바 있다.⁷⁾

도시화의 진전은 시민계층의 형성과 관련되어 주목되는 현상이다. 조선 후기에 도 상업도시들이 성장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연구도 없지 않다. 그러나 시민이 세력화 할 만큼 성장하지 못하였던 까닭에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도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⁸⁾

조선 후기 민중의 성장은 1980년대 사회민주화 운동이 진전되면서 학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민중의 역량 강화와 의식 향상은 농민항쟁이 폭발되는 양상을 통해서, 민중의 경제력 향상은 농업과 상공업의 발전 양상을 통해서 추론되었고, 과거 서민문화의 발달로 이해되던 현상은 민중문화의 발달로 바꾸어 설명되고 있다.⁹⁾ 특히 민중들의 의사결정기구였다고 할 수 있는

6) 金良洙, 「朝鮮後期の 社會變動과 技術職 中人 - 譯官層을 중심으로-」, 『한국의 사회와 문화』 2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7) 송복 외 8인, 『韓國近代移行期 中人研究』(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신서원, 1999.

8) 본격적인 연구 성과로는 고동환, 『조선시대 서울도시사』, 태학사, 1997.이 있다.

9) 강만길, 『고쳐 쓴 한국근대사』, 창작과 비평, 2003.

민회와 그 전 단계 조직인 민이 구성한 계, 민의 공동 노동조직인 두레의 발생과 발달은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제까지 본 바와 같이 조선 후기 사회변동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 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 연구 성과가 다른 주제에 비하여 풍부하지 못하다. 사회변동 가운데서도 민중의 성장과 민중의식의 재고를 직접 연구한 성과는 거의 없어, 경제사나 사회사 연구 성과로부터 민중의 역사상을 추론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 사회변동 특히 민중의 성장에 대한 교육은 학생들이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제까지 이루어진 조선 후기 사회변동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그 과정과 성격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에서 사회변동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교과서에서 부족한 설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¹⁰⁾ 이어서 이상의 연구 성과 정리와 교과서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조선 후기 사회변동에 대한 토론 수업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격변하는 사회 속에서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10) 교과서 분석은 ‘한철호·김기승·김인기·조왕호·권나리·박지숙, 『고등학교 한국사』, (주)미래엔컬처그룹, 2011.’로 하겠다. 채택률도 높을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다른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조선 후기를 충실하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Ⅱ. 조선 후기 주요 사회 변동의 과정과 의미

조선 후기의 경제발전은 농업에서 시작되어 상공업과 광업 등으로 확산되었다. 이로써 경제생활이 안정되면서 잉여생산물이 늘고 인구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농민층 분해 현상이 전개되고, 새로운 성격의 도시가 형성 성장하게 되었다. 나아가 중세사회를 유지해 온 중요한 장치인 신분제도 또한 흔들리기에 이르렀다. 여기서는 이러한 변화를 차례대로 살펴기로 한다.

1. 농업 발전과 농민층 분해

조선 후기에는 시비법과 모내기의 발달로 토지생산성이 높아지고 농업에 필요한 노동력이 감소되었다. 또 경작되는 작물에서도 변화가 나타나서 농민들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작물의 재배에 열을 올리게 되었다. 토지 한 결당 필요한 노동력이 낮아지면서, 농민 한 명이 경작하는 토지의 면적이 넓어진 광작이 나타났고 경작지를 얻지 못한 농민들은 빈농으로 몰락하여 농촌을 떠나 일자리가 있는 도시로 이동하게 된다.

1) 농업생산력 증대

조선 전기에는 거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땅의 질이 좋지 않은 곳에 파종된 종자에만 거름을 주는 조방적인 시비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외양간의 두엄이 거름으로써 발달하게 되고 농지전체에 시비하

는 분전법이 시작되어,¹¹⁾ 조선 전기에 일반적이었던 직파법이 모내기로 변화된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전에는 해갈이를 통해 지력을 유지했으나 연작이나 이모작이 이루어지면서부터는 거름을 주어 땅의 힘을 기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외양간의 두엄이 거름으로 발달하게 된 것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우마분이나 인분 그리고 누에똥 등을 부식시키는 기술이 개발되고, 草糞의 경우에도 조선 후기로 와서야 다복쑥, 깨깍질, 할미꽃 같은 다양한 재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¹²⁾ 시비법은 품종과 파종법에 따라 거름을 다르게 줄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여 농업생산력을 높여갔다. 18세기 말에는 농업생산력이 더욱 증대되어 그에 맞게 시비법이 체계화되었고 농서인 《산림경제》에 「시비」 항목을 처음으로 독립하여 기술하기에 이르렀다.

모내기의 보급은 시비법의 발달과 함께 조선 후기 농업생산력이 발달하는 원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시비법이 토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요인이었다면, 모내기는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농법이였다. 모내기를 할 경우 제초 회수를 4회에서 2회로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모내기는 고려시대부터 행해지고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보급된 것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다.¹³⁾ 저수지와 보를 많이 갖추게 된 것이 가뭄에 취약한 모내기를 보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보는 농민들 스스로의 힘으로도 축조 할 수 있는 규모였기 때문에 농민들은 저수지보다는 보를 선호하였다.¹⁴⁾ 국가에서도 양관 이후 피폐해진 농촌을 재건하기 위해 수리시설을 축조 보완하는 정책을 펼쳐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어 갔고,¹⁵⁾ 그리하여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이르

11) 李鎬澈, 「朝鮮後期の 社會經濟的 發展과 그 性格」, 『경제논집』 제35권, 1996, 404쪽.

12) 이정철, 「18세기 조선의 소빈농층과 모내기」, 『한국사학보』 제8호, 2000, 339~349쪽.

13) 金容燮, 「朝鮮後期の 水稻作技術-移秧法의 普及에 對하여」, 『아세아연구』 13, 1964, 5~6쪽.

14) 강만길, 앞의 책, 79쪽.

15) 정부는 현종 3년(1662년)에 堤堰司를 설치하여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와 지방관이 제언을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수리시설을 정비해갔다. 그리하여 18세기말 19세기 초가 되면 저수지가 많이 축조되어 3천 5백 개 이상에 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언보다 작은 규모로 보가 건설되었는데 이도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있었다. 보는 18세기 이후에는 개인이 보를 축조하여 수세를 받는다든지 혹은 자신의 토지에 관

면 삼남지방에서는 대부분 모내기법이 실시되었다.

시비법 발달과 모내기 보급 외에도 농기구 발달도 농업생산력을 증대 시켰다. 조선 초기 40여 종으로 파악되는 농기구가 후기에 가면 191종까지 다양해졌다. 이 중 쟁기와 호미 같은 제초작업에 편리한 농기구가 발달하면서 토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조선 후기에는 다양한 상품작물이 재배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잡곡보다 높은 가치를 실현할 수 있었던 벼가 가장 중요한 상품작물로 여겨졌고, 모내기가 보급되면서 모내기에 적합한 벼 품종들이 개발되었다. 쌀 외에도 면화와 모시 같은 직물과 소채, 인삼, 과일나무, 담배, 고구마, 감자 같은 작물들이 조선 후기에 재배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품종의 재배는 단순히 농업 발전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면화, 모시, 담배, 인삼은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관련된 작물이다. 특히, 면화와 모시의 경우에는 수공업과 상업의 발전을 보여주는 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에 이르러서 농민들이 스스로 옷감을 만들어 옷을 지어 입기보다, 면화와 모시를 구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소채는 농촌인구가 도시로 몰려오고 도시의 상업적 성격이 강해지면서 도시 근교에서 재배되었다. 이익이 많이 나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소채를 재배하는 농민이 급증하였다. 고구마와 감자는 흉년에 구황작물로 활용되면서 농민들의 생활 안정성을 높였다. 고구마는 정부에서 재배를 적극 권장하여 재배 면적이 확대되었고, 감자는 청로부터 전래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여러 지역에서 재배되어 감자만을 재배하여 생계를 유지해 가는 지역이 나타날 정도였다.

조선 후기에는 시비법이 발달하고 모내기가 보급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증대

개함으로써 부를 축적하여 갔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는 보의 전성기를 이루어 큰 보의 수만 2천여 개가 넘었다. (李永鶴,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상품작물의 재배」, 『한국사』 33 - 조선 후기의 경제, 국사편찬위원회, 1997, 53~55쪽.)

되었고, 농민들은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였다.

2) 광작의 확산

조선 후기에 모내기가 전국적으로 보급되면서 노동력이 절감되고 시비법의 발달로 토지 생산력도 높아진 결과 광작이라는 새로운 농업경영방식이 나타났다. 광작은 농부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이 넓어진 것을 의미하며, 광작이 가능해지면서 자작농 겸 지주는 임대해 주었던 토지를 스스로 경작하게 되었다. 광작을 통해 경작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은 모내기가 보급될수록 커질 수 있었다. 그리하여 광작농은 같은 노동력으로 약 4배까지 경작 면적을 넓힐 수 있었다.¹⁶⁾

그러나 모내기를 통해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광작을 행할 수는 없다. 경작의 면적은 노동력이 필요할 때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고용하고 토질에 맞는 법씨를 사용하는 등 토지 생산력은 높이면서 노동투입량은 낮추는 농민의 경영 능력에 달려있었다. 경작지의 확보와 고용노동 확보는 소농이나 빈농은 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광작에 열심이었던 부류는 자작농이나 소작농으로서 부농층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농은 임노동을 이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농우나 농기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경작 면적을 확대하여 성장해서 경영형 부농이 되었다.

광작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노동력을 사용하는 형태가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농민 모두가 경영형 부농이 될 수는 없었다. 하층 농민 대다수는 빈농이었기 때문에 농사지을 땅을 가지지 못하여 노동 시

16) 崔允暉, 앞의 책, 75쪽.

장을 통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했다. 그러나 농촌사회는 계절적으로 노동력의 수요가 집중되어 있어서,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장기 고용노동층인 고공층과는 달리 농촌에서 단기간 고용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신분적 연속성이 강한 노비와 노비주의 관계와는 구별되어 고용의 대가로 雇價를 청구하는 경제적 관계를 유지할 뿐 신분적 연속 관계는 아니었다.

광작이 확산되는 18세기 이후에는 노동력도 상품화되어 비교적 자유롭게 매매되기에 이르렀다. 광작은 재화가 아닌 용역인 노동력도 상품화 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 사회에서 농민의 생활모습을 근대적인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3) 농민층의 분해

17세기 이후 광작이 사회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지주제 확대에 의해 초래된 농촌사회의 위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과정에서 대농, 부농 등으로 불리던 광작농이 경작지를 더욱 넓혀감에 따라 경작지를 확보하지 못한 농민은 몰락해갈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상품화폐경제의 발전 및 수공업과 광업의 발달 등도 농민층 분화 현상을 촉진시켰다. 자영농을 중심으로 한 평균적 소농이 부농·중농·소농·빈농의 형태로 분화되었고 토지를 소유한 정도와 경영의 능력에 따라 부가 편중되었다. 즉, 농민층의 일부는 부농층으로 성장해 갔으나 다수의 농민은 빈농층이나 무전농민층으로 몰락하였다.

경작지를 가지고 있거나 지주들의 토지를 빌릴 여력이 되었던 농민들과 달리 농촌에서 경작지를 얻지 못하거나 임노동을 할 곳도 얻지 못한 농민들은 도시나 광산, 포구 등지로 자신의 노동력을 팔러 떠나야만 했다. 이는 조선 전기에 봉건적 착취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유민들의 모

습과는 다른 것이다. 이전에는 타향에서 소작을 하다가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고향이 아닌 다른 농촌에서 정착을 하였으나, 조선 후기에는 고향이 아닌 다른 농촌에서도 고용의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았다.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농촌의 분화는 더욱 촉진되었고 농업기술과 경영의 쇄신으로 단위면적에 소요되는 농업노동력이 감축되어 가난한 농민들은 소작농의 위치에서도 밀려나고 있었다.¹⁷⁾

이러한 분화 현상은 양반층에서도 일어났다. 양반층도 권력에 참여하거나 토지를 집적하여 부를 축적한 계층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관직에 올라가지 못하거나 부를 모으지 못하여 몰락양반으로 전락해간 층이 생기게 되었다.

평민과 천민들 중에서도 양반을 능가하는 부농이나 지주가 존재하였으며 양반층 중에서도 몰락하여 소작인으로 전락한 층이 있다는 것은 주목할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 후기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는 경제적 관계로만 인식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조선 후기 각 계급의 분화 현상은 중세 사회의 두 축 중에 하나였던 신분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신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이다.

2. 상공업의 발달과 도시화의 진전

양관 이후 경제 상황이 안정되어 가면서 인구가 증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면서 농촌에서 경작할 토지를 얻지 못한 농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야 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농민들은 상업과 공업에 종사하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도시가 발생하기도 하고,

17) 崔完基, 「朝鮮後期 서울의 變貌와 그 意味」, 『역사교육』 제60집, 1996, 77쪽.

행정적 도시가 상업적 성격도 가진 도시로 성장하였다.

1) 인구의 증가

조선 후기에 인구를 파악하는 것은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근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당시 인구를 파악해야 하는 이유를 현재의 필요성에서 생각해 본다면, 조선 후기의 인구를 파악하여 그것을 통해 당시의 경제 규모를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겠다.

양란 이후 국가체제 재건을 위해 戶와 口의 수를 철저히 파악하는 일은 숙종 연대까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호구총수』에 따르면 1660년 이래 호적에 올라있는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여 양란 직후인 인조 17년(1639)에 1,521,165명에서 현종 10년(1669)에는 5,018,744명으로 숙종 19년(1693)에는 7,045,115명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54년간 약 460%가 증가한 것이다.¹⁸⁾ 그러나 『호구총수』를 조사하는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확한 요인들을 감안하여 연구에 따라 각기 다른 조선 후기의 인구 추정치를 발표하였는데, 조선 후기의 인구를 정조 13년(1789)에 최대 18,296,000명, 최소 17,202,496명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¹⁹⁾

당시 조선은 다른 나라와의 교역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인구의 이입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당시 인구의 증감은 자연 증감으로 생각된다. 인구의 증가는 양란 이후 조선의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상황에서 17~19세기 영농기술의 발달과 경작지 확대, 토지생산력의 급속한 증대로 인하여 광작이

18) 韓榮國, 「인구의 증가와 분포」, 『한국사』 33 - 조선 후기의 경제, 국사편찬위원회, 1997, 13쪽 : 서철호, 「조선 후기의 인구와 통치」, 『사회와 역사』 제74집, 2007.

19) 權泰煥·愼鏞廈, 「조선왕조시대 인구추정에 관한 一試論」, 『동아문화』 제14호, 1977 : 김두섭, 「조선 후기 도시에 대한 인구학적 접근」, 『한국사회학회』 제24집, 1992.

확산되면서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인구의 태반이 농촌에 머물러 있었던 당시 경제 상황에서 농촌에서 일자리를 얻기 힘들어진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그들은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떠나야 했던 것이다. 인구의 증가는 이주의 자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던 중세 사회의 모습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2) 상공업의 발달

조선 후기에 농업 생산력의 증가로 농민들은 자신들이 자급자족하고 남은 농산물을 내다 팔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잉여 농산물을 판매하여 부를 축적해 가는 농민들도 등장하였으나, 인구증가와 광작은 농촌에서 필요한 노동력보다 공급되는 노동력이 더 많아지는 현상을 가지고 왔다. 농촌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한 농민들은 도시로 이주하여 농업 외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찾아야 했다.

그 당시 국가재정도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현물공납에서 화폐경제로 변화되어, 관공장에서 장인을 시켜 물건을 만들게 하는 것 보다는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더하여 관료들의 횡포와 정부의 충분하지 못한 재정적 대우로 장인들의 도피가 빈번하여 관영수공업이 붕괴되어 관영수공업이 쇠퇴하고 자유롭게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민영수공업이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상업구조가 수공업자들도 자유롭게 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을 보여준다.²⁰⁾

상업인구가 증가하여 상인 간의 경쟁이 심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상인들이 관권과 결탁하여 특권적 매점 상업을 영위하게 되었다. 양란 이후 극심한

20) 劉元東, 「朝鮮後期 商工業發展과 政策變化」, 『역사와 담론』 제19·20합집, 1992, 139~146쪽.

재정곤란을 겪고 있던 조선정부는 17세기 초엽 국역이라는 명목 하에 일종의 특별세를 육의전과 같은 대규모 시전에서 징수하였다. 그러나 이후 징수의 범위가 확대되어 종래 상업세보다 훨씬 부담이 무거워지자 정부는 금난전권이라는 독점적 상업특권을 시전상인에게 그 대가로 주었다. 상업이 발달하면서 시전상인들은 상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금난전권을 발동하여 원료를 매개로 상품을 생산하는 수공업자들을 자신들에게 예속시키려고 수공업자들의 제품판매를 난전으로 규정하여 그 물품을 매점해 나갔다.

대동법 이후 등장한 특권상인인 공인은 정부의 수용물품을 조달하던 공물청부업자를 말한다. 공인들은 납품하는 물건이 많은 경우 같은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들끼리 공동으로 출자하여 조합과 같은 계, 공계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정부에서 공가를 후하게 주었기 때문에 공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 많았고 계의 조직도 활발하였으나 조선 후기 공물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공가 지출이 과다해짐에 따라 정부는 공가지급을 줄이려고 하였다.

유통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정부는 더 이상 비싼 공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이 시가로 공물을 구입해서 조달하려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가 자체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유통 및 물품제작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상인층이 계속 공인권에 투자하면서 활동을 벌여 나갔다. 공인권이 보장해주는 특권을 자신들의 상업활동에 이용해 보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이다.

시전상인과 관권을 배경으로 물건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합쳐서 파는 일을 하는 官商都賈의 활동도 상품유통경제의 발달에 기초한 것이지만, 이들의 도고상업은 그들이 지녔던 특권성으로 인하여 근본적으로 자유상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개인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私商都賈와 수공업자, 소상공인, 소비자 등과 같은 여러 분야의 사람들은 관상도고에 강력히 도전하면서 새로운 상업체계를 수립하려고 하였다. 이들 중 대표적인 상인은 사

상도고였다. 사상도고는 대규모의 자본력과 전국적인 상업조직망, 경영능력 등을 바탕으로 관상도고의 특권에 대항하면서 점차 조선 후기 상업계의 중심적 위치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사상도고는 개성을 중심으로 송상, 의주를 중심으로 한 만상, 동래를 중심으로 한 내상 등이다. 특히 고려왕조의 도읍지였던 개성에서는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일찍부터 상업에 종사하여 성공한 경우가 많았다. 해상활동을 통해 확보한 송방 등의 전국적 상업조직망을 이용하여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도고상업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의주상인, 동래상인을 조종하여 對중국무역과 對일본무역을 장악하고 중개무역을 수행함으로써 성장한 상인이었다. 송상은 집적한 자본을 인삼을 재배하여 홍삼가공업에 투입하였고 삼포와 증포소를 경영하였다.²¹⁾

사상도고도 어느 정도 자본을 축적하자 시전을 설립하고자 했다. 시전을 설립할 경우 상행위가 합법화되고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시전상인들은 새로운 시전의 설립이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시전의 설립을 제지하려 하였지만, 당시 상황은 사상들은 물론이고 양반관료를 비롯한 권세가와 그들의 노복, 각 관아의 서리와 군병들까지 난전활동을 벌이면서 시전 상인들의 상권을 침해하고 있었다. 특히 사상들은 서울 외곽지대에 상업지를 설치하고 서울 내의 사상들과 유기적인 연계망을 형성하는 데까지 성장하여 정부로서도 더 이상 사상들의 활동을 막기는 어렵게 되었다. 결국 정조 15년(1791) 통공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30년 이내에 설치된 시전은 모두 철폐되었고 금난전권도 육의전에 국한되게 되었다.

인구의 증가는 농촌에서 잉여 노동력을 발생 시켰고, 농촌의 농업으로 노동력을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러 사람들은 상업과 수공업에 종사하여 경제활동을 하게 되었다.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한 것은 생산된 물품을 구매할

21) 고동환, 「자본주의 맹아론과 조선후기 상업 변동 - 강만길 《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을 중심으로 -」, 『한국사연구』 제147호, 2009, 366쪽.

수 있는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였다.

3) 도시화의 진전

상업이 발전하면서, 농촌에서 생겨난 잉여 노동력이 도시로 모여들어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을 초래했다. 서울·평양·대구와 같은 도시들이 행정기능을 유지하면서 상업도시로서의 면모와 기능이 부각되었다. 특히 서울은 최대의 소비도시로 유민들의 상당수는 서울로 모여들었다. 서울에서 인구가 급증한 것은 17세기 후반부터로 효종 8년(1657)에 8만이던 서울의 인구는 현종 10년(1669)에는 19만여 명으로 늘어나 2배가 넘는 급속한 인구증가 현상을 보였다.

18세기에 이르러 서울은 지금까지 정치적 중심지에서 더 나아가 경제적 기능을 가진 도시의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18세기 서울의 인구는 20만 명을 넘어 당시로서는 세계적인 대도시로 커가고 있었다.²²⁾ 이렇게 사람들이 서울로 모여든 것은 서울에는 그나마 일자리가 있었고,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구휼책도 서울을 우선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이었다. 서울의 인구가 증가하고 상업이 번성함에 따라 서울 외각 지역이었던 용산, 마포, 서강 등이 한강을 따라 발달하였고 서울로 진입하는 위치에 있는 송파와 누원(현재 서울 도봉구 지역) 등지도 성장하였다.

이런 도시화는 서울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정조 13년(1789)에는 주요 도시 중에서 1,000가구 이상인 지역이 57개로 나타나고 있고 그 중 2,000 가구 이상인 지역도 한성부 5부(서울), 평양, 개성, 상주, 전주, 의주, 대구, 공주, 해주, 진주, 부산, 나주, 영유(평안남도 평원의 옛 지명) 이렇게 13곳이 된다.²³⁾ 지방에서 도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

22) 崔完基, 앞의 책, 68~80쪽.

23) 김두섭, 앞의 책, 15~17쪽.

이 있다.

개성은 서울과 평양을 잇는 상품유통경로의 중간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상품유통의 거점으로 성장하였다. 육로를 통한 상품유통을 개성상인이 주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또 개성은 상업 외에도 유기수공업, 초립제조공업, 인삼의 상업적 재배와 가공업이 발달하여 있어 임노동을 수용할 여건이 충분하였다.

평양은 서울과 개성 다음으로 상업이 가장 번성한 지역으로 평양지역 상인상인들이 다른 지방에까지 진출하여 상업에 종사하였고, 선상활동을 한 자들도 있었다. 전주와 대구도 행정중심지에서 상업도시로 변해갔는데 특히 대구는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약재시장이 대구에서 열릴 정도로 성장하였다.²⁴⁾

조선 후기는 조선 전기와 달리 봉건적 수탈, 자연재해의 압박뿐만 아니라 토지소유구조의 모순과 농업기술 발전, 농업 경영의 변화,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등으로 인해 농촌사회의 분해가 이루어지면서 유민이 형성되었다. 농업노동력의 수요에 비해 농업노동자의 공급이 초과되는 농촌사회 내부에서의 분해 작용으로 유민화가 촉발되었고, 유민들은 고용기회가 주어지는 곳,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모여들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 후기의 도시화는 백성들이 거주를 자유롭게 이전하는 것을 더 이상 억압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려주고 있다. 자유롭게 옮겨 다니면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여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모습은 분명 중세적인 모습에서 근대로 옮겨가고 있는 사회변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4) 高東煥, 「상품의 유통」, 『한국사』 33 - 조선 후기의 경제, 국사편찬위원회, 1997, 382~385쪽.

3. 신분제의 동요와 중간층의 성장

신분제도는 토지제도와 함께 중세 사회의 양축이라고 할 수 있다. 신분제를 통해 백성들을 통치하고 역을 징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신분제도가 흔들린다는 것은 국가의 기반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 후기에는 경제력에 의해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었고, 또 그 반대로 신분이 몰락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었다. 귀속적 의미의 신분제가 성취적 의미의 신분제로 변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1) 균역의 양역화와 신분질서의 동요

조선 초기에는 벼슬을 가지고 있거나 공노비나 사노비로서 身役을 지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들은 균역의 의무를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양반에서 평민에 이르는 모든 신분이 균역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16세기경에 가서는 양반층의 균역 면제가 당연시 되었다. 양반층이 균역에서 제외되는 시점이 언제 인지를 확인할 사료가 없어서 그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성종 연간에서 중종 연간을 거치면서 양반층이 균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고 있다.²⁵⁾ 양반들이 균역에서 제외되면서 균역이 양인들만이 담당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조선 후기에 가서는 양역화된 균역이 역을 가진 하층민에 대한 경제적 수탈을 가중하게 하였고 사회적으로도 ‘천한 역’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역을 부담하는 하층민이 균역으로부터 탈출하려는 피역현상을 유발하였다. 피역을 하는 방법 중에서 최선의 방법은 신분을 상승시키는 것이었다. 신분을 상승하는 방

25) 김우철, 「균역법은 왜 성공하지 못했나」, 『내일을 여는 역사』 제8호, 2002, 123쪽.

법 중에 하나는 벼슬하지 않은 유생을 칭하는 이른바 冒稱幼學의 방법을 이용하여 양반신분으로 변동하는 것이었다. 18세기 중반에 실시된 균역법은 군포 부담이 상민층에만 한정됨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어 이로 인해 양반층과 중인층은 합법적으로 역을 면한 반면에 상민층은 ‘천한 역’으로 인식된 균역을 전담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원래 양역가를 줄여 역무를 가볍게 해주려고 하였던 균역법은 결국 그 의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백성들의 부담만 늘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役을 가진 하층민의 과중한 군포부담은 피역을 도모하려는 모칭유학을 더욱 유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장적의 법제와 사회기강은 무너져가고 있었다.²⁶⁾ 이러한 기강의 문란은 균역제의 동요와 더불어 사회신분제의 동요를 가속화하였고, 이에 따라 모칭유학의 증가도 더욱 확대되어 갔다. 그리하여 정조 21년(1797년)에는 농사꾼이나 군정의 자식들과 면천한 奴까지도 유학을 칭하였다. 18세기 말에는 모칭유학의 수적 증가와 함께 장적상에서 유학층 점유율이 대단히 높아져서 군정을 뽑는데 빈 이름만 실리는 폐단이 나오기도 했다고 한다. 19세기에도 균역 도피자가 속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유학 모칭자를 색출하여 균역에 충정하려는 일련의 조치들이 고종 연간까지도 계속되었다.

역의 유무는 반상을 구분하는 주요한 징표의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면역을 위한 유학의 수가 증가하는 현상은 중세 해체기 사회변동의 실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유학층의 신분혼효 및 신분직역의 상향 조정은 신분상승을 통한 신분직역제의 해체로 연결되며, 동시에 중세 불평등 사회에서 근대 평등사회로 이행하는 중세 해체기 사회의 구조적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26) 李俊九, 「양반층의 증가와 분화」, 『한국사』 34 - 조선 후기의 사회, 국사편찬위원회, 1995, 22쪽.

2) 중간층의 성장과 향촌질서의 변화

중간층은 호적대장에서 대부분 유학을 모칭하거나 군관직을 소유하고 있어서 엄연히 평민이나 천민과는 구별되고 있었다. 중간층은 상청과 하청의 구별 그리고 엄격한 반상의 구별을 강조한 신분질서 사회인 조선의 농촌에서, 조선 후기에 이르면 향약과 동약 등에서 스스로 중청을 설정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경제적으로는 요호부민층에 해당하는 존재들로서 18세기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재물을 스스로 바치는 원납 등을 이용하여 신분을 상승하였다. 이렇게 신분이 상승되면 수탈체계에서 이탈되면서 관권과의 결탁이 쉬워졌다.

조선 후기 향권의 주도권 쟁탈전에서 볼 수 있는 한 표현으로서 ‘구향’과 ‘신향’의 구분도 향촌에 있는 양반층의 계층분화의 한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신향’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향입, 이서, 서열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회경제적 실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신향’은 행정적인 실무를 장악하게 됨으로써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가운데 신분지위를 보장받으려 하였다.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관 주도의 향촌통제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향권이 사족에서 이향층으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관아에 속하여 말단 행정실무에 종사하던 이서층이 수령의 보좌역할을 하면서, 부세수취 등에 있어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신분지위가 이전보다 한층 격상하게 된다. 중간층의 성장에서 면역도 중요한 요인이었으나, 중간층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수령권을 중심으로 향촌사회가 재편되면서 실무능력을 이용하여 향권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 사회변혁운동의 대두

조선 후기에는 향촌지배를 둘러싸고 ‘구향’과 ‘신향’들의 싸움이 본격화되어 향전이 벌어졌다. 향전은 농촌사회에 전세를 수취하는 책임이 수령에게 주어지면서 이향세력이나 부민층들이 수령권과 결탁하여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과거 지배신분층이던 사족들이 누렸던 특권을 이양 받거나 그 특권을 허구화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조선 후기 향전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시 농촌사회에서 향회의 역할을 주목해 봐야 한다. 향회는 원래 사족층들이 상호 결속을 다지고 농촌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직이었으나, 18세기에 들어와서 부세를 납부하는 방식이 마을 공동납으로 전환되어 가던 과정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라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향회가 부세에 관한 행정을 담당하던 기관에서 수령을 자문하는 기관으로 성격이 전환되었다. 향회 구성에 있어서도, 반상의 구분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향회도 나타면서 새롭게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계층으로 요호부민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농민층 이외에도 상인이나 광산업자 등 다양한 출신기반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령이 돈을 받고 판매한 향청의 직임[賣鄉]을 통해서 향권에 접근해 갔다.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사족양반인 대민의 민의를 집결하고 대변하는 데에 향회의 기능이 더욱 발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요호부민에게 전가되게 되었고 그들의 부담은 결국 일반 농민층으로 다시 전가되면서, 관과 요호부민의 대립과 관에 기생하는 이향층과 농민의 대립이라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향회는 농민항쟁의 조직기반으로 활용되었고, 요호부민층이 항쟁의 선두에 설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다.

그런데 요호부민이 아닌 일반 백성들도 19세기 중엽 이후에 이르면 자신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대민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향회와는 별도로, 민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민회는 향촌사회의 대민과 소민이 모두 참여하여 수령주도의 향회와는 구별되었다. 민회에서는 부세문제에 대한 해결방향을 논의할 때, 여러 사람이 이름을 잇대어 써서 관청에 올려 하소연하는 합법적 방식인 등소²⁷⁾를 이용하였다. 후에 민회는 '진주민란'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거사계획과 조직을 점검하는 중심 기구로 발전하게 된다.²⁸⁾

그리고 두레조직과 같은 농민조직을 통해 자신들의 사회적 기반에 대해 인식하고 다른 마을의 두레와 연대감을 가지는 단계로까지 성장하게 된다. 19세기 농민항쟁과정에서 두레·초군으로 불리는 세력은 바로 이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논농사에서 모내기과 김매기에 노동력 투입이 고도로 집약되면서 생산에 참여하는 농민들의 힘을 강화시켰다. 자작농과 소작농민들 뿐만 아니라 무전농민들도 두레에 참여하여 외부 수탈세력에 저항할 때에는 함께 행동하였다.²⁹⁾ 이러한 민중조직의 출현은 민중세력의 성장을 나타내는 현상이며, 이 조직들을 기반으로 하여 민중저항운동이 준비되었다.

조선 후기 균역법과 대동법의 시행이 농민의 경제적 고통과 신분적 어려움을 더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고, 토지관계에서도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주·전호관계가 점차 강화되면서 백성들의 불만은 고조되어갔다. 여기에 임란직후 신분제적 모순도 백성들의 저항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양반들이 대외적 전쟁에 천민층의 힘까지 동원하여 이를 극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생활은 개선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17세기 초에는 남원에서 천민층의 비밀결사인 살인계가 조직되어, 양반들이 천민층에게 피해를 가했을 경우 이에

27) 한국역사연구회 지음, 『1894년 농민정쟁연구3-18·19세기의 농민항쟁』, 역사비평사, 1994, 256쪽.

28) 高成勳, 「민중운동의 사상적 기반」, 『한국사』 36 -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국사편찬위원회, 1997, 79쪽.

29) 정석중, 「중세사회의 동요와 해체」, 『한국사』 9 - 중세사회의 해체1, 한길사, 1994, 71~75쪽.

대한 보복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정치적 자치 기구를 조직할 능력까지 갖추게 된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만을 홍경래의 난이나 임술 농민 봉기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데까지 성장하였던 것이다.

Ⅲ.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에 서술된 조선 후기 사회변동 내용 분석

기존 7차 교육과정에서 ‘국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라는 세 과목으로 배정되어 있었던 고등학교 역사 과목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역사’, ‘한국문화사’, ‘세계역사의 이해’, ‘동아시아사’ 네 과목으로 분리되었다. 이를 7차 교육과정부터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사’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사회과 10 단위 속에 4 단위로 포함되어 있었고 ‘한국 근·현대사’와 ‘세계사’는 선택 중심 교육 과정에 포함된 심화 선택 과목으로 각각 8 단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역사’가 8학년(중 2), 9학년(중 3), 10학년(고 1)에 배정되고 ‘한국문화사’, ‘세계사의 이해’, ‘동아시아사’가 선택과목으로 되어있었다.

그런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역사’라는 과목명을 사용하기로 되어있었는데, 그 과목명 대신에 ‘한국사’로 변경되었다. ‘역사’는 원래 8학년, 9학년에서 한국사 영역과 세계사 영역을 배우고 10학년에서 근·현대사에 해당하는 내용을 배울 예정이었다.³⁰⁾ 7차 교육과정에서는 선택 중심 교육 과정 속에 ‘세계

30)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별책 7], 2007-06-15, 교육과정평가원(www.kice.re.kr)

학년 영역	8학년	9학년	10학년
한국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 삼국의 성립과 발전 ○ 통일 신라와 발해 ○ 고려의 성립과 발전 ○ 고려 사회의 변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사회의 변동 ○ 근대 국가 수립 운동 ○ 대한민국의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역사의 형성과 발전 ○ 조선 사회의 변화와 서구 열강의 침략적 접근 ○ 동아시아의 변화와 조선의 근대 개혁 운동 ○ 근대 국가 수립 운동과 일

사'와 '한국 근·현대사'가 별도의 교과목으로 있었기 때문에, '국사'과목은 지역적으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시기적으로는 선사시대부터 근대태동기³¹⁾까지를 서술하고 있으나 2007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는 과목명과 맞지 않게 지역적으로는 전세계를 다루고 있고, 시기적으로는 근대 이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³²⁾ 이런 영향으로 인해 2007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의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³³⁾ 본 연구에서 다루는 조선 후기 사회사 부분도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분량과 내용이 대폭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도 사회사라는 부분이 차지하는 중요도는 정치사나 경제사에 비해 떨어졌고, 교과서 분량 면에서는 문화사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조선 후기 사회사 부분은 7차 교육과정에서 2007 개정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변화가 있었다. 동일한 7차 교육과정 내에서도 『국사』 교

	○ 조선의 성립과 발전		본 제국주의의 침략
세계사 영역	○ 통일 제국의 형성과 세계 종교의 등장 ○ 다양한 문화권의 형성 ○ 교류의 확대와 전통 사회의 발전	○ 산업화와 국민 국가의 형성 ○ 아시아·아프리카 민족 운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 ○ 현대 세계의 전개	○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 전체주의의 대두와 민족 운동의 발전 ○ 냉전 체제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 정세의 변화 ○ 세계화와 우리의 미래

31) 2006년부터 발행된 『국사』 제 2판에는 각 분야사 마지막에 근·현대 부분이 별도로 서술되어 있으나, 분량면에서나 내용면에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대신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32) (주) 미래엔 컬처그룹의 교과서 경우에는 부록을 포함하여 총 415쪽 분량에서 98쪽부터 근현대 내용을 서술하였고 천재교육의 교과서 경우에는 부록을 포함하여 총 431쪽 분량에서 90쪽부터 근현대 내용을 서술하였다. 이렇게 교과명과 교과서 내용 사이에 괴리가 생기게 된 것은 정권이 바뀌면서 교육과정 내용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33) 현대를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현대와 가까운 시기인 근현대사를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선사시대와 전근대사회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는 근현대사를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역사적 사건은 어느 한 순간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서의 사회사 부분은 분량 면에서 초판³⁴⁾은 16쪽을 할애하였으나 제2판³⁵⁾에서는 12쪽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구성내용에서도 초판에서 다루었던 내용이 빠져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³⁶⁾ 초판 ‘③ 농민층의 변화’는 제2판에서는 ‘② 향촌 질서의 변화’에 ‘농민층의 분화’에 내용이 요약되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 다른 부분의 경우도 소제목만을 보았을 때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이 많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줄어든 부분은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 부분이어서, 삭제된 부분 부분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³⁷⁾ 또 제2판에는 초판에 수록되었던 읽기자료는 그대로 수록되었

34)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교육인적자원부, 2003. 판을 참고하였다. 초판은 2002년부터 발행되었다.

35)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교육과학기술부, 2009. 판을 참고하였다. 제2판은 2006년에 1쇄가 발행되었다.

36) 초판과 제2판의 단원 구성 비교

초판	제2판
V. 사회 구조와 사회 생활	V. 사회 구조와 사회 생활
4. 사회의 변동	4. 근대 태동기의 사회
① 사회 구조의 변동	① 사회 구조의 변동
신분제의 동요	신분제의 동요
중간 계층의 신분 상승 운동	중간 계층의 신분 상승 운동
노비의 해방	노비의 해방
가족 제도의 변화와 혼인	가족 제도의 변화와 혼인
인구의 변동	인구의 변동
② 향촌 질서의 변화	② 향촌 질서의 변화
양반의 향촌 지배 약화	양반의 향촌 지배 약화
부농 계층의 대두	농민층의 분화
	관권의 강화
③ 농민층의 변화	
농민층의 분화	
지주와 임노동자	
④ 사회변혁의 움직임	③ 사회 변혁의 움직임
사회 불안의 심화	사회불안의 심화
예언 사상의 대두	예언 사상의 대두
천주교의 전파	천주교의 전파
동학의 발생	동학의 발생
농민의 항거	농민의 항거

37) ‘서얼은 양반 사대부의 소생이면서도 성리학적 명분론에 의하여 여러 분야의 사회 활동에서 각종 제

으나 도움글³⁸⁾은 모두 삭제되었다. 삭제된 도움글 중 ‘양반분화’는 당시 지배 계층인 양반 내에서 분화가 나타나고 있어 몰락한 양반은 농업이나 수공업, 상업 등에 종사하기도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내용을 통해 조선 후기에 신분이 상승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락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설명해줄 수 있고, 경제활동의 모습이 조선전기에 비해 다양해져서 농업 외에 수공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늘어났다는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사라진 점이 아쉽다. 또 다른 삭제된 도움글 ‘천주교에 대한 비판’은 교과서 본문에서 천주교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인 것을 위주로 서술한 것에 반대되는 내용을 언급한 글이다. 이 부분이 제2판에서 도움글 형식으로는 삭제되었더라도 본문에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하였다면 더 완성도 있는 교과서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가 분야사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회사가 교과서에서 어느 정도 분량을 차지할 수 있었으나 通史로 집필된 이번 2007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³⁹⁾(이하 『한국사』)의 경우에는 조선 후기 사회사에 해당하는 내용이 네 쪽⁴⁰⁾에 불과하다. 분량이 줄어든 만큼 내용에서도 많은 부분이 삭제되어 있는데 사회구조의 변동과 향촌질서의 변화, 사회

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불만이 커져갔다.’, ‘기술직을 담당하거나 이서로서 행정 실무를 맡고 있던 중인층은 사회적으로 그 역할이 크면서도 역시 고급 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있었다.’, ‘누적된 불만을 표출한 중인들은 철종 때 대규모의 소청 운동을 일으켰다. 비록 이들의 노력은 성공하지 못하였으나 이를 통하여 전문직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부각시켰다.’, ‘17세기 이후 성리학적인 의식과 예절이 발달하고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가 확립되면서 혼인 후 곧바로 남자 집에서 생활하는 친영 제도가 정착하게 되었다. 제사는 반드시 큰아들이 지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고, 재산 상속에서 큰아들이 우대를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딸들이 그리고 점차 큰아들 외의 아들들도 제사나 재산 상속에서 그 권리를 잃어 갔다.’ 등이 제2판에는 제외되어 있다. 제외된 이러한 내용들은 중세사회의 신분제도가 흔들리고 있었고, 정치적인 면에서든 경제적인 면에서든 능력을 키운 계층에서는 신분 상승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부계위주의 장자상속제도가 보통 사람이 알고 있는 것보다 그리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설명들이다.

38) 삭제된 도움글은 초판 223쪽과 233쪽 ‘양반의 분화’와 ‘천주교에 대한 비판’이다.

39) 한철호·김기승·김인기·조왕호·권나리·박지숙, 『고등학교 한국사』, (주)미래엔컬처그룹, 2011.

40) ‘2-6 평등사회를 향해 나아가다’(92쪽, 93쪽), ‘3-2 세상을 바꾸려는 움직임’(100쪽, 101쪽).

변혁의 움직임은 서술되어 있는 반면 가족제도의 변화와 혼인, 인구변동, 사회 불안의 심화, 농민층의 분화 등은 다루지 않고 있다.⁴¹⁾ 천주교가 전파되고 동학이 발생한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사회불안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는 것이 천주교와 동학 피지배계층에게 전파되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천주교와 동학이 조선 후기 사회변동에서 피지배계층에게 정신적인 위안을 주는 역할을 했던 것을 잘 나타나게 서술해야 할 것이다. 동학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동학을 창시한 사람은 최제우였으나 동학의 교리와 교단을 정비한 중요한 인물이 제2대 교주인 최시형인데도 최시형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서 교과서 분량을 맞추기 위해서 내용을 줄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동학이 몰락 양반 최제우에서 시작되어 그 후 농민운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볼 때 조선 후기의 사회변동에서 백성들의 모습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너무 소홀하게 다루었다.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 봉기에 대한 설명도 할애된 지면이 너무 적다. 오개월이나 지속되었던 홍경래의 난과 전국적으로 확산된 임술 농민 봉기를 단 여섯 줄로 설명하고 있다. 이 두 사건은 조선 후기에 피지배계층이 지배계층에게 수탈되어 어렵게 살고 있는 모습과 그 어려움을 극복해보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다.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 봉기는 사회에서 발생한 문제를 제때에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건이므로 더 비중있게 다루어야 한다.

『한국사』에는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되고 있는 조선 후기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내용이 많이 제외되어 있다. 보통 근대화의 조건을 크게 네 가지로 설명

41) 7차에 있던 가족제도의 변화와 혼인에 대한 설명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외된 것이 가장 아쉬운데, 교과서 내용에서 제외된 것이 더 이상 남녀차별이나 장자상속이라는 것이 의미 없어진 사회가 되어서 그 부분이 삭제된 것이라면 좋겠다.

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정치면에서 국민국가(또는 시민국가)의 성립 과정, 두 번째 조건은 경제면에서 자본주의화의 진행여부이다. 세 번째는 사회면에서 도시화의 진전에서 그 조건을 찾고 네 번째 문화면에서는 합리주의적인 사상의 진행여부이다. 『한국사』에는 조선 후기 도시화의 진전에 대한 설명이 제외되어 있어서 학생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도시화가 개항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7차 『국사』에는 들어가 있는 인구변동과 연계하여 도시화에 대한 설명⁴²⁾이 『한국사』에도 서술된다면, 학생들이 조선 후기에 진행된 근대이행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농민층, 상인, 광산업자 등 다양한 출신기반을 가지고 있는 요호부민에 대한 설명도 『한국사』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요호부민에 대한 설명은 7차 『국사』 교과서에서도 초판⁴³⁾에만 수록되어 있는데, 요호부민을 통해 조선 후기 경제발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분질서의 동요와 향촌사회의 변동 모습을 설명하는 데에도 중요한 계층이다. 요호부민은 향회를 장악하여 향촌사회의 여론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농민봉기 때에는 지도적 위치에 있는 되는 사람들이다.

42)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교육과학기술부, 2009, 224쪽.

43)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교육인적자원부, 2003, 228쪽.

IV. 조선 후기 사회변동에 대한 수업 방안

조선 후기 사회변동에 대한 수업을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해 보고자 한다. 교수학습 설계에는 강의식 수업 방식, 탐구학습 방식, 토론학습 방식, 극화 학습 지도 방식 등 크게 네 가지가 있다.⁴⁴⁾ 교수학습 설계의 네 가지 방안 중에서 단순한 암기 위주의 학습이 되지 않도록 하고 깊이 있는 이해와 현상에 대하여 비판적, 분석적으로 사고하며 어떤 상황을 평가하고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론식 수업 방안을 이용하여 수업을 구성해 보겠다. 토론식 수업 방안은 위에서 열거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으면 수업 자체가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또, 토론식 수업은 학생들의 참여도뿐만 아니라 토론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토론할 내용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때문에 본 수업 방안에서는 학생들에게 토론과 관련된 내용을 강의식 수업 방식을 통해 먼저 제공하도록 하여 토론 주제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도록 하겠다. 그리고 강의식 수업의 정리 시간에 수업과 관련 있는 세 가지 토론 주제를 제시하여, 주제 중에서 원하는 토론 주제를 학생들이 정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수업방안은 1차시로 끝나는 수업이 아니라 강의식과 토론식 수업 총 2차시로 구성되어있다.

우선 수업 2차시에서 토의할 토론 주제는 다음 세 가지로 선정하였다.

44) 국사 편찬 위원회·국정 도서 편찬 위원회, 『고등학교 국사교사용 지도서』, 교육인적자원부, 2007, 33~42쪽.

A : 군역을 양인만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

B : 불법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신분 상승을 인정할 것인가.

C : 농민봉기를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위의 세 가지를 토론 주제로 선정된 공통적인 기준은 조선 후기에 나타난 현상 중에서 전근대사회를 근대사회로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었는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 현상이 현재 사회문제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학생들이 사회문제를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A 주제인 “군역을 양인만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를 토론의 주제를 선정된 이유는 군역의 양역화가 중간층은 물론이고 노비와 같은 천민집단에서도 피역 현상이 발생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분을 상승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신분제의 동요를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봉건적인 군역제도인 병농일치제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또, 현재 사회에서도 사회지도층의 불법적인 병역면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지도층의 특권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학생들이 TV나 신문 등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접하면서 지도층에게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된다면 그것이 사회문제라는 인식조차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학생들이 그 문제점을 환기하게 시키고 그 문제가 야기할 수 있는 현상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토론의 주제로 선정했다.

B 주제인 “불법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신분 상승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토론의 주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선정하였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 그 일의 결과만을 보고 그 과정의 적법성이나 정당성 등을 생각하지 않는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토론주제로 선정하였다. 두 번째 이유는 불법적인 방법이지만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켜 좀 더 사람답게 살고자 한 조선 후기 피지배층의 상황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토론 주제로 선정하였다.

C 주제인 “농민봉기를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를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바라보는 눈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학생들이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토론 주제로 선정하였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갈등이 존재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사회에서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갈등을 너무 문제시하고 갈등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만을 옳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길을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갈등자체를 문제시하기 보다는 갈등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는 사회가 더 바람직한 사회이다. 다양한 사람들의 주장과 의견을 접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시민으로 학생들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주제를 세 번째 토론 주제로 선정하였다.

토론 수업의 규칙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1. 특정 토론 주제에 학생들이 집중 되지 않도록 한 주제 당 학생 수에 대한 안배가 있어야 한다.⁴⁵⁾
2. 각 조에는 조장을 두고, 조별로 주제에 대한 심화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 한다.
3. 학생들에게 자신이 그 주제의 찬성 입장 인지, 반대 입장 인지에 대한 부분은 토론 당일 교사가 정하도록 한다.⁴⁶⁾
4. 토론 당일 토론 주제에 대한 ‘찬성 대 반대’ 학생 비율은 조의 전체 학생 수를 1:1 비율로 나누도록 한다.

5. 토론 시간은 각 조별 7분으로 하고, 토론 후에는 각 조별 3분 정도로 해서 사회자(교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6. 수업이 끝난 후 전체적인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⁴⁷⁾

1. 1차시 수업 방안⁴⁸⁾

단계	교수·학습 활동	수업 내용과 자료	시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학습 내용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공업 생산 방식의 변화 - 도고 성장의 의미 ○ 본시 학습 주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계층 분화와 신분 상승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권 강화와 수령과 향리의 수탈 - 서학과 동학 등 새로운 사상의 전파 - 농민운동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 김홍도의 ‘자리짜기’(교과서 92쪽) 	5분
전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계층 분화가 일어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몰락 양반 - 부를 축적한 상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생전’에 허생을 예로 들면서 설명 - 경제적 변화가 신분계층에 끼친 영향 	15분

45) 토론수업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원활한 토론 수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토론 수업 시간에 사회자로서 역할도 중요하지만, 토론 수업 이전에 조를 구성하는 사전 작업부터 교사가 적극적인 역할이 해야 한다.

한 학급 학생 수를 40명으로 가정했을 때, 한 조 인원이 15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46) 학생들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미리 정해서 토론을 할 경우 한쪽의 입장만을 학습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47) 학생들이 토론의 세 가지 주제에서 전근대사회의 해체 모습이라는 공통점을 느끼지 못하여, 수업이 흩어지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48) 토론 수업 주제를 강의 수업시간에 다뤄야 하기 때문에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1차시로 설계하였다. 그래서 『한국사』에서 ‘2-6 평등사회를 향해 나아가다’와 ‘3-2 세상을 바꾸려는 움직임’(92, 93, 100, 101쪽)을 함께 수업한다.

	<p>○ 중인층과 노비들이 신분 상승을 추구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민들의 신분 상승 - 서얼의 신분 상승운동 - 중인 기술직 - 노비 종모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을 상승하려는 이유 - 납속책과 공명첩 - 족보 구매와 위조, 도망 -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등이 검서관까지 오른 의미 설명 - ‘허생전’에 나오는 변씨가 역관 출신으로 많은 부를 축적한 인물임을 설명 - 奴와 양인 여자가 결혼할 수 있게 된 이유 	
전개 2	<p>○ 향촌 사회의 주도권 다툼 속에 관권이 강화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입직 - 수령의 권한 강화 <p>○ 세상을 바꾸려는 움직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언사상, 서학, 동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향과 구향의 갈등 설명 - 수령의 권한 강화 - 요호부민과 민회 - 농민항쟁 설명 - 조선 후기 여러 사상이 등장한 원인과 널리 퍼진 이유 	10분
정리	<p>○ 다음 수업에 토론 주제 3 가지를 제시한다.</p>	<p>A : 균역을 양인만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p> <p>B : 불법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신분 상승을 인정할 것인가.</p> <p>C : 농민봉기를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를 나누고 조장을 정한다. 	10분

2. 2차시 수업 방안

단계	교수·학습 활동	수업 내용과 자료	시간
도입	○ 전시학습 내용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별로 나눠 앉도록, 미리 역사부장에게 지시해 두도록 한다. - 각 조에서 찬성과 반대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나눈다. 	5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조 토론을 시작한다. ○ 2조 토론을 시작한다. ○ 3조 토론을 시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골고루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학생들에게 토론의 내용을 간략하게 공책에 정리하도록 지도한다. - 토론 시간은 7분으로 제한한다. - 토론 후 3분 정도 내용을 정리한다. 	30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으로 토론을 정리하도록 한다. ○ 차시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토론하며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한다. - 어느 조의 토론 내용이 가장 훌륭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발표하게 한다. - 토론한 학생들 중에서 최고 토론자를 선정한다. - 실학자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공부할 것임을 알려준다. 	15분

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 사회변동의 시작을 농업 발달에 의해 부를 축적한 농민층의 분해에서부터 살펴보았다. 농민들은 시비법을 개선하고 모내기를 보급하면서 토지생산력과 노동생산성을 높여갔다. 농업에서 생산력이 증대되어 토지 한 결당 경작에 필요한 농민의 수가 줄면서 나타난 광작현상은 조선 전체의 모습을 바꾸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광작과 함께 다양한 상품작물이 재배되어 쌀 외에 면화와 모시 같은 직물과 소채, 인삼, 과일나무, 담배, 고구마, 감자 같은 작물들이 조선 후기에 재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의 발전을 통해서 모든 농민들이 부농으로 성장할 수는 없었다. 경영형 부농이 된 농민이 있었는가 하면 경작지도 얻지 못하여 농촌을 떠나야 하는 농민들도 생겨났던 것이다. 농민층의 분해는 증세 사회의 해체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다양한 작물이 경작되는 현상은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동시에 상업과 수공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와 아울러 양란 이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농촌에서 일자리를 얻기 힘들어진 농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한 것도 도시화가 진전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로써 행정 기능을 가진 관아 도시가 아니라 농촌의 잉여 노동력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들이 성장하게 된 것이다. 기존에 행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서울과 평양과 같은 도시는 물론이고, 수공업과 상업이 발전하면서 촌락이 도시로 발전하면서 조선 후기에 2,000 가구 이상인 도시가 13곳에 이르게 된다.

조선 후기의 법제적 신분체계는 여전히 양천제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반상제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하층민들에게서도 균역을 피하려고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시키는 현상이 나타나 반상제가 흔들렸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경제적으로 요호부민층에 해당하는 존재인 중간계층은 원납 등을 이용하여 신분을 상승하였다. 사회경제적 실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등장한 '신향'은 관권과 결탁하여 행정적 실무를 장악하게 됨으로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여 신분지위를 보장받으려 하였다. 18세기에는 향촌지배를 둘러싸고 '구향'과 '신향'들의 싸움이 본격화되어 향전이 벌어졌다.

18세기 이후로 부세를 납부하는 방식이 마을 공동납으로 전환되어 가던 과정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향회가 부세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수령을 자문하는 기관으로 성격이 전환되었다.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일반 백성들이 자신들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향회와는 별도로 민회를 구성하는 데까지 발전하였다. 백성들은 서로 연대하여 여러 마을이 두레를 함께 조직하는 데까지 조직력을 발전시켰고 이러한 조직들은 조선 후기 농민 봉기 시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선 후기에는 민중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전근대에서 근대로 이행되는 조선 후기 대한 부분이 분량 차제도 매우 적어서 조선 후기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개념인 도시화의 진전이나 요호부민 그리고 민회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 후기가 전근대 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았다. 학생들은 자칫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자발적인 자본주의 발전없이 일제 침략 이후나 혹은 광복 이후에 외세에 의해서 성장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백성들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을 배울 수도 없다.

사회사 분야가 정치사나 경제사에 비하여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것이 오

래되지 않아 연구의 성과물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사’라는 과목은 학생들이 단순한 왕의 업적이나 정치기구의 이름 그리고 경제제도를 외우는 과목이 아니라, 학생들 자신의 현재를 보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과목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백성들의 삶에 변화가 많으면서, 다양한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는 조선 후기가 ‘한국사’ 교육에서 중요한 시기가 되는 것이다. 조선 후기의 사회사에 대한 수업이 분량과 내용에서 좀 더 풍부해져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이에 조선 후기 사회변동에 대한 바람직한 수업 방안으로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깊이 있는 이해와 현상에 대한 비판적·분석적인 사고를 통해 상황을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토론식 수업을 제시하였다. 총 2차시로 제시된 수업 방안에서 1차시 수업에는 토론의 주제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기 위해 강의식 수업으로 내용을 정리하였고, 2차시에서는 1차시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세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였다.

토론식 수업에서 토론의 주제는 조선 후기에 나타난 현상 중에서 전근대사회를 근대사회로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면서 그 현상이 현재 사회문제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학생들이 현재 사회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수업 목표를 두었다. 선정한 세 가지 주제는 “군역을 양인만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 “불법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신분 상승을 인정할 것인가.”, “농민봉기를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이다. 이 세 가지 주제로 토론함으로써 학생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현재를 살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고 나와 다른 의견에도 경청할 수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사회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학생들이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를 지도하여야 한다. 조선 후기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 교과서에 다루고 있는 조선 후기 사회사에 대한 내용도 좀 더 충실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다룬 조선 후기 사회변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현재 사회문제나 현상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교육인적자원부, 2003.
-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교육과학기술부, 2009.
- 한철호·김기승·김인기·조왕호·권나리·박지숙, 『고등학교 한국사』, (주)미래엔컬처그룹, 2011.
- 국사편찬위원회·국정도서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교사용 지도서』, 교육인적자원부, 2007.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7], 2007-06-15, 교육과정평가원 (www.kice.re.kr).
- 강만길, 『고쳐 쓴 한국근대사』, 창작과 비평, 2003.
- 高東煥, 「상품의 유통」, 『한국사』 33 - 조선 후기의 경제, 국사편찬위원회, 1997.
- 고동환, 『조선시대 서울도시사』, 태학사, 1997.
- 고동환, 「자본주의 맹아론과 조선후기 상업 변동 - 강만길 《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을 중심으로 -」, 『한국사연구』 제147호, 2009.
- 高成勳, 「민중운동의 사상적 기반」, 『한국사』 36 -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국사편찬위원회, 1997.
- 權泰煥·愼鏞廈, 「조선왕조시대 인구추정에 관한 一試論」, 『동아문화』 제14호, 1977.
- 김두섭, 「조선후기 도시에 대한 인구학적 접근」, 『한국사회학회』 제24집, 1992.
- 金良洙, 「朝鮮後期の 社會變動과 技術職 中人 - 譯官層을 중심으로-」, 『한국의 사회와 문화』 2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 金容燮, 「朝鮮後期の 手稻作技術-移秧法の 普及에 對하여」, 『아세아연구』 13, 1964.
- 金容燮, 『朝鮮後期農業史研究』 I·II, 一潮閣, 1970.

- 김우철, 「균역법은 왜 성공하지 못했나」, 『내일을 여는 역사』 제8호, 2002.
- 송복 외 8인, 『韓國近代移行期 中人研究』(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신서원, 1999.
- 서철호, 「조선 후기의 인구와 통치」, 『사회와 역사』 제74집, 2007.
- 劉元東, 「朝鮮後期 商工業發展과 政策變化」, 『역사와 담론』 제19·20합집, 1992.
- 李永鶴,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상품작물의 재배」, 『한국사』 33 - 조선 후기의 경제, 국사편찬위원회, 1997.
- 이정철, 「18세기 조선의 소빈농층과 모내기」, 『한국사학보』 제8호, 2000.
- 李俊九, 「양반층의 증가와 분화」, 『한국사』 34 - 조선 후기의 사회, 국사편찬위원회, 1995.
- 李鎬澈, 「朝鮮後期の 社會經濟的 發展과 그 性格」, 『경제논집』 제35권, 1996.
- 정석중, 「증세사회의 동요와 해체」, 『한국사』 9 - 증세사회의 해체1, 한길사, 1994.
- 崔完基, 「朝鮮後期 서울의 變貌와 그 意味」, 『역사교육』 제60집, 1996.
- 崔完基, 「임노동의 발생」, 『한국사』 33 - 조선 후기의 경제, 국사편찬위원회, 1997.
- 崔允晤, 「광작과 지주제」, 『한국사』 33 - 조선 후기의 경제, 국사편찬위원회, 1997.
- 한국역사연구회 지음, 『1894년 농민정쟁연구3-18·19세기의 농민항쟁』, 역사비평사, 1994.
- 韓榮國, 「인구의 증가와 분포」, 『한국사』 33 - 조선 후기의 경제, 국사편찬위원회, 1997.
- 허종호, 「우리나라에서의 화폐지대의 발생에 대하여」, 『력사과학』, 1964.

ABSTRACT

A study on social change of Late Joseon Dynasty

Lee, Kyung-Sook

Dept. of Histo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the late of Joseon Dynasty into a modern society changed from the pre-modern society is the time. In late Joseon Dynasty but not sufficient, by itself, and the evolution of capitalism that can be found. During this period, began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has become differentiations of peasantry and progress in the development of commerce and urbanization and as the middle-tier status in order to grow and the shaking movements of social transformation has begun. So students meet not only the king and ruling class but also various people, the timing of the appearance is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is study was launched from worrying about 'usefulness to students What is the teaching of history'. Students who currently live in the present understanding of social issues and phenomena, and it is important to raise the ability to judge. For them as a way to make the teaching of history made in the late Joseon Dynasty into a modern society in pre-modern social aspects of the large variations noted.

This thesis reviews the first order Researcher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rough the process of social change examined. To increase the agricultural productivity of the late Joseon Dynasty 'gwangjak(廣作)' and 'managerial rich farmer(經營型 富農)' appeared. However, failure to obtain land, farmers and the rural world the labor moved to the city. In addition, in this series of phenomena only to economic activities, agriculture has created a difficult situation and development of agriculture and handicrafts became. Cities with existing administrative functions as the city with the economic capability extends the functionality and the original non-urban areas into the city grew with the development of commerce and industry.

In the late Joseon Dynasty caste system was shaking phenomenon appears in many places, I took note military service(軍役) become Yangyeokhwa(良役化). In order to avoid military service(軍役) social status was rising. Economically prosperous prefecture layer changes since the 18th century socioeconomic status rises by actively able to shut them redirected to the guhyang(舊鄉) is contrasted with sinhyang(新鄉) is referred to. Can be seen in the late Joseon Dynasty representation hyanggwon(鄉權) scramble guhyang(舊鄉) and sinhyang(舊鄉) of the hyangjeon(鄉戰) rural differentiation by showing the hierarchy of layers can be understood. Based on socio-economic skills emerging sinhyang(新鄉) to secure the administrative practices to expand becoming increasingly influential position of the identification was trying to get a guarantee. Vested centered on the middle tier of the rural community as

the practical ability to restructure the hyanggwon(鄉勸) initiative has been tweaked. Once you are in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in rural areas the other was made minhoe(民會) different from hyanghoe(鄉會).

The current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 for social change as describ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after analyzing the current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 reflects the Researcher of not enough information to know what could be. Progress of urbanization, or yohoboomin(饒戶富民), minhoe(民會) descriptions of the "Korean History" textbooks are not in the Joseon Dynasty contains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change may have noticed.

So in this thesis, the lack of textbooks social change in late Joseon Dynasty to help lead can be presented to the class room. Lesson plan for chang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society as a classroom instructor-led classes and seminar to do so, as of 2 classes proposed measures. Classroom lessons on the topic of discussion to increase understanding and interest in the proposed plan for the course was chosen based on this three topics were taught the seminar. The seminar topic of discussion in the classroom to the phenomenon of the late Joseon Dynasty pre-modern society into a modern society and an important factor in changing the current social issues and the phenomenon has relevance were selected by considering whether. Through this lesson plan for students to understand today's social problems and phenomena, and to judge the skills, I hope.